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창세기 9 주차 (3:20~19)
(2016년 2월 14일 - 2016년 2월 20일)
(제 4권 9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4 권-제 9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2 월 14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 (주일)

오늘의 본문 (창 3:20~21)

(20 절) 그 남자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וַיִּקְרָא הָאָדָם שֵׁם הָאִשְׁתּוֹ חַוָּה)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살아 있는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כִּי הִוא הֵיְתֵהּ אֵם כָּל־חַיִּים)

(21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וַיַּעַשׂ יְהוָה אֱלֹהִים לָאָדָם וּלְאִשְׁתּוֹ כִּתְנוֹת עוֹר וַיַּלְבָּשֵׁ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선악과를 따 먹은 인간들은 이제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는 매우 처참했다. 인간들은 자기의 생명을 선악 판단 능력과 맞바꾼 셈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인류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인간의 눈에 옳든 그르든 인간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해 나온 모든 행위는 죄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은 뱀, 여자, 남자에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 주셨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모든 악의 맹아다. 가인의 살인도, 노아의 홍수도, 바벨탑의 반역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 뿌리는 모두가 이 사건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 사이에 의미심장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명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일이다. 이 두 사건이 왜 심판과 추방,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일까? 왜 굳이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불행한 사건의 주동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앞으로의 그들의 운명을 말씀해 주셨다. 이제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것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이다. 아담이 철면피나 바보가 아니라면 이렇게 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성경은 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는 하와라는 이름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와’(חַוָּה)는 ‘생명’이라는 뜻이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칠십인 역에서는 이 단어를 아예 ‘생명’이라는 의미의 ‘조에’(Ζωή)로 번역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들은 유일한 사람이다. 게다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경고하셨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단어가 죽음이 아닐까? 만약 아담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다면 그는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일 것이다.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다. 그가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로 지은 이유는 바로 이 죽음 때문이다. 생명은 죽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된

다. 물론 죽음도 생명이 있어야 그 의미가 생생해진다. 죽음없는 생명은 무의미하며 생명없는 죽음은 헛되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의 목숨을 그자리에서 바로 거두어 가지지 않았다. 대신 아담의 존재 근원인 땅을 저주하심으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저주 받은 땅을 갈아 그곳에서 산출된 저주받은 식물을 먹고 살다가 결국은 저주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 외에 달리 어떻게 죽음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수고와 애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먼지뿐인 육신을 부여잡고 인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아담은 그것을 깨달았다. 죽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죽은 자는 자신이 살았다 착각하며 살고, 반대로 자신이 죽은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은 생명을 갈구하게 된다. 그렇기에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생명(하와)이라 명명했다.

하와라는 이름에는 죽음을 경험한 아담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다.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 진정한 생명을 주는 자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담은 여자의 몸을 통해 언젠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죽음을 이겨내실 이가 오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믿음이 여자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물론 그렇게 이름 짓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입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회복을 선언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바로 생명 그 자체임을 강조하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아담 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교제가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회복됐다. 물론 모든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먼지가 될 운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덧입은 새로운 창조물로 대체하신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그것이 부활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 15:47-49).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먼지로 사라질 흙집으로 지어진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흙집 안에 생명이 있다. 마치 질그릇 속에 생명이 담긴 모습이다. 그 생명은 부활의 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아담은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아내의 이름 속에 둔 것이다. 저주와 심판, 그리고 죽음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아담이 붙잡은 것이 생명이다. 생명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겐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합니까? 그 죽음을 보며 생명을 향한 갈망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발견하셨나요?

에덴에서의 첫 죽음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20~21)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 명명했다. 이는 죽음을 경험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손짓이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할 차례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은 놀랍게도 짐승을 잡아 그가죽으로 인간의 옷을 만드신 것이었다.

창세 이래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에덴에서 일어났다. 아담과 하와의 옷을 위해 짐승이 죽어야 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인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석가들은 에덴이라는 안전한 장소로부터 쫓겨나 새롭게 맞게 될 살벌한 환경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해석한다. 또한 그들의 수치를 온전히 가려주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설명한다. 모두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보자. 아담과 하와에게 준 옷은 그자체가 가슴 아픈 사연일 수 밖에 없다. 먼저 이 옷을 지어 입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 옷을 입히고 나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긴 이별을 해야 한다. 옷은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에덴을 떠나 정처없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준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곧 닥쳐 올 운명이 어떤 것일지 모를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해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다. 단순히 말 한 마디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손수 빚어서 생명을 불어 넣어 만든 존재다. 그리고 그 인간을 에덴에 두어 그에게 피조세계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 먹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복구불능의 상태가 됐다. 그뿐 아니라 이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되고 결국은 서로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가죽옷을 얻기 위해 짐승이 죽었다. 그때 죽은 짐승이 양인지 염소인지 소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 사실 어떤 짐승이었나보다는 짐승이 죽었다는 사실 그자체가 훨씬 중요하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 했다. 원래 인간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띠를 만들어 입었다. 나뭇잎으로 만든 띠는 햇볕을 조금만 받아도 한나절을 못버틴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그렇다. 당황스러운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제법 잘 참아 내는듯이 보인다. 그러다가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폭발하고 만다. 그때 폭발의 피해자는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면 실상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단단히 비르고 있는 형국이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의라는 것이 그렇다.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이내 무너져 내려 자신의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낸다. 인간의 생각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 인간 측에서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기만 하면 된다.

그 짐승은 가죽을 내어주기 위해 피를 흘려야 했다. 에덴에서 그날 죽은 짐승은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피를 쏟고 죽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잡은 짐승의 피는 지성소에 뿌려진다. 그리고 보면 짐승은 단지 가죽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 제물로 죽은 것이다. 한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물의 가죽은 죄인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가지게 된다(레 7:8). 즉, 희생된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에게 속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짐승으로부터 나온 가죽을 받으셔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데 사용하셨다. 그것이 선물이요 은혜다.

짐승은 에덴에서 피흘리며 죽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았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으셨다. 율법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대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타살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히브리서 9장 11 절과 12 절을 읽어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모든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1~12).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양을 직접 잡는 존재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희생양이다. 스스로가 제물이다. 이 자체가 모순이다. 어떻게 하나의 존재가 희생 제물을 잡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모순은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총감독인 것이다. 유대인들, 빌라도, 로마 병사들은 그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수치를 항구적으로 가려 주셨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라”(롬 3:23~26).

짐승의 가죽은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가렸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신 후 인간을 에덴으로부터 추방하셨다. 첫 아담은 가죽옷을 입고 수치심을 가렸지만 그는 길고 긴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다. 두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을 그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기까지 인간들은 수고와 애씀의 굴레를 벗지 못한다. 이처럼 에덴의 가죽옷은 뭔가 불안하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당신은 자신의 수치를 무엇으로 가리려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수치를 가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그리하여 그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22~24)

- (22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יְהוָה אֱלֹהִים)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הֲוֹ אָדָם הָיָה כְּאֲחָד מִלְּנוּ לְדַעַת טוֹב וָרָע)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생명의 나무(의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
(וְעָמְתָה פְּרִי־יִשְׁלַח יָדוֹ וְלָקַח גַּם מֵעֵץ הַחַיִּים וְאָכַל וְחַי לְעֹלָם)
- (23 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근원이 된 땅을 갈도록 하기 위해,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습니다. (וַיִּשְׁלַחֵהוּ יְהוָה אֱלֹהִים מִגֶּן־עֵדֵן לַעֲבֹד אֶת־הָאָדָמָה אֲשֶׁר לָקַח מִשָּׁם)
- (24 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וַיִּגְרֶשׁ אֶת־הָאָדָם)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빙빙 도는 불검을 두셨습니다,
(וַיִּשְׁכֵּן מִקְדָּם לְגִן־עֵדֵן אֶת־הַכְּרִיבִים וְאֵת לֶהֱט הַחַרְבַּב הַמְתַּהַפְּקֹת)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לְשָׂמֵר אֶת־דֶּרֶךְ עֵץ הַחַיִּ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자상한 마음이 느껴지는가? 그런데 이내 그들을 추방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추상같았다. 어떻게 한 분 하나님께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짐승을 손수 잡아 가죽옷을 입히시는 자상한 하나님과 이내 심판 모드로 돌아가는 엄한 하나님, 이런 상반된 모습에 어떤 이는 매우 혼란스러워 할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변호하려 한다고 에둘러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인간의 변호나 받을 정도로 궁색한 분이 아니니 말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깝고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2:17)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다. 조금의 여지도 없고 일말의 동정심도 없다. 아담으로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단호한 명령을 인간이 어긴 것이다. 하나님이 철더라도 들고와 당장 내리친다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3:11). 이 질문에서 우리는 그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느낄 수 없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식의 뉘앙스다. 질문의 어조는 추궁보다는 오히려 위로에 가깝다. 뱀과 여자를 차례로 정죄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3:17). 이 말씀도 역시 분노는 아니다. 오히려 측은지심에 가깝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먹고 살다가 결국은 먼지로 돌아갈 아담을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다. 하나님은 다시 선악과를 언급하신다. 그런데 이번 대화에서는 아담은 빠진다. 하나님끼리의 대화다.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생명의 나무(의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3:22).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또 우리라 칭하셨다. 아담을 창조할 때와 같다. 바늘 구멍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경고는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사실 말이 고민이지 이미 결론이 난 것을 협의라는 형식을 빌어 선포할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 한 대목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다. 바로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대목이다. 정말 인간들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정말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선과 악을 판단해 낼 능력이 생긴 걸까? 아담 이후 전개된 역사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인간들은 각자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극대화하고, 싫고 원치 않는 것은 한사코 멀리 한다. 인간의 선악 기준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이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열납하지 않자 동생 아벨을 죽였다. 하나님을 향한 화풀이를 동생에게 해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인간의 표본이다.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상처를 받았다고 사람을 죽이고 상함을 입었다고 소년을 죽였다.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창 6:5 참조). 인간의 생각이 악할 뿐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뜻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선악 판단의 주체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오로지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따라 휩쓸려갈 뿐이다. 인간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 바벨탑이 그 증거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자 노력한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 판단 기준이다.

인간이 지닌 선악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분노가 솟구친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교회가 말하는 성공이 다른 게 무엇인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결국 나를 좀 인정해 달라 하는 자기 외침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칭찬받아 마땅하고 본받을 만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인간이 절대선을 행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선을 행하고 나서 스스로 중용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칭찬을 바라지 않았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팬시리 섭섭한 생각이 든다. 때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물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늘 미소로 화답하지만 말이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했다. 바리새파 유대교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했을 정도이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 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온다 (눅 18:9-14 참조). 이 기도를 통해 인간 편에서의 선악이 하나님 편에서의 선악과 무엇이 다른지 쉽게 알 수 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필이면 그가 기도할 때 세리가 멀쩡이 떨어져 기도하고 있었다. 바리새인은 그 세리가 너무 고마웠다. 자신의 선과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세리가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그 세리와 달리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눅 18:11).

인간들은 자신의 의를 입증하기 위해 은근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끌어 들인다. 그리고는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며 판단한다. 자기 생각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르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리의 가치까지 폄하해서 깎아내리려는 것이 인간이다. 세상에서 자기보다 한참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서 자신과 같은 직분을 가질 때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이 인간들의 판단 기준이다. 이처럼 인간들은 어디를 가나 자기들만의 선악 판단 기준으로 연신 도토리 키재기를 한다. 출신학교로, 타고 다니는 차로 서로의 가치를 잴다. 살고 있는 집의 평수나 위치로, 또는 직업이나 직장으로 키재기를 하기도 한다. 일례로 구청장도 구청 공무원이고 거리 청소를 하는 분들도 구청 공무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같은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기를 원치 않는다. 어디 세상만 그런가? 집사로 있다가 이제 막 장로가 된 사람 중에는 자신을 장로로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집사로 부르는 사람이 얼마 없을 때가 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공연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그것이 인간들의 알팍한 선악 기준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 동일하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두가 동일한 존재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악 기준은 엄청난 은혜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체험할 수 있으니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처럼 스스로의 선악 기준으로 다른 이와 자신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당신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만약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자신이 세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셨나요?

에덴에서 쫓겨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3:22~24)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생명 나무의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지 모른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이 앞으로 영생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인간이 영생하는 것이 두려우신 걸까?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을 하게 된 존재가 영생까지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재앙이 된다는 말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낸 것일까? 이 구절은 갖가지 질문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쉽게 이해될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성경은 구속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속해 내시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따라서 인간이 선악 기준을 갖고 영생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선악 판단 기준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에게 재앙이다.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는 말이 있다.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늘어간다는 말이다.

중국의 삼국시대에 서서(徐庶)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촉나라에서 유비를 돕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위부인은 조조가 다스리는 위나라 땅에 살고 있었다. 조조는 서서를 자기 수하로 데려 오고자 계략을 꾸몄다. 서서의 계략이 위낙 출중해 자신이 여러 번 낭패를 보았기 때문이다. 서서의 어머니가 위나라 땅에 산다는 사실을 안 조조는 사람을 보내서 위부인을 설득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마침내 조조는 피를 내어 위부인이 보낸 것처럼 편지를 써서 서서에게 보냈다. 그 편지 내용은 조조의 호의로 잘 지내고 있으니 위나라 조조에게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이들 모자는 서서의 효심을 노린 조조의 꾀에 속아 넘어갔다. 결국 서서는 유비를 떠나 조조에게로 가서 조조를 섬기게 된다.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위부인은 ‘여자식자우환’(女子識字憂患)이라는 글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가 글자를 아는 것이 이런 우환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다’라는 뜻이다. 그녀가 글자를 알지 못했다면 자식이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끔은 아는 것이 독이 될 때가 있는 법이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은 독을 넘어 재앙이다. 아담이 선악을 알고 난 후 자신의 벗었음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띠를 만들어 입은 것은 가인이 한 일과 비교한다면 거의 애교에 불과할 정도다.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한 소극적이고 순진한 방어였으니 말이다. 반면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한테서 외면 당했다는 이유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가인의 질투심의 근저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인간들은 때론 이런 거절감으로 인해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인은 하나님의 선택과 거부를 인간 수준에서의 선악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극단적인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소외되고 불의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

너로 부른 일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 창녀같이 불의한 자들이나 어부처럼 천한 사람들을 택하셨다. 문둥병자, 거지, 맹인, 귀신들린 자들처럼 예수님이 찾은 사람들은 그 당시 한결같이 악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대개가 악의 축이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 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는지는 아예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긴다. 으레 게으른 삶을 살아서 그렇다거나 혹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들이라고 쉽게 단정하며 가까이 하기를 꺼려한다. 그들은 요즘 말로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들이다. 오늘날 흙수저는 저주받은 천형의 상징처럼 가혹하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과 악을 각자의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가지려고 애쓴다. 어떤 이들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한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선에 대한 인간들의 기준은 너무도 명료하다. 자신을 돋보이게 해 주는 모든 것이 선이다. 재력, 권력, 명예 등 자신의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선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이 자신을 보다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돋보이게 해 준다.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사역, 더 큰 교회 그 자체가 자신들의 힘이다. 그래서 믿는 자든 아니든 누구나 물욕, 권력욕, 명예욕에 쉽게 빠져든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다(요일 2:16). 이것이 뱃속까지 선악 판단으로 체화되어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원치 않는 모든 것은 악으로 규정한다. 부부 간에도 선의 기준이 다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르다. 가족끼리도 선의 기준이 저마다 제각각인데 다른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랴? 그러면서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이내 사탄의 농간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버린다. 이처럼 모든 선악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자기 생각에 옳으면 선이고 그것을 벗어난 것은 늘 악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선의 기준을 벗어난다 싶으면 가차없이 정죄의 칼날을 들이댄다. 남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는 건 기본이고 때로는 그 칼끝이 자기 자신을 겨누기도 한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자책감이 들게 되고 그 자책감은 때론 자기 목숨을 끊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이 각자의 선악 판단 기준을 지닌 채 영원히 산다고 상상해보라.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영생을 막고 에덴으로부터 인간을 추방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다. 인간은 한평생 자신의 근원인 땅을 갈면서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가다가 마침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이 땅을 갈면서 자기 실존에 관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이 아니면 한 순간도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를 찾게 돼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생명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듯 구원은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실존에 대한 자각 없이 어떻게 그와 함께하는 새로운 창조의 기쁨을 알겠는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그들은 낙원을 잃는 대신 생명에 대한 소망을 얻었다. 그래서 실락원은 저주가 아닌 가슴시린 하나님의 사랑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에덴에서의 추방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진실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가인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2)

(1 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습니다.(동침했습니다). (וַיִּזְכֹּר אָדָם אֶת־הָאֵשֶׁת־הָאֵלֹהִים)
그녀는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וַיֵּלֶד הָאֵשֶׁת בְּרֵאשִׁית)
그녀가 말했습니다. (וַתֹּאמֶר)
여호와와의 도움으로 내가 남자를 얻었다. (וַתֹּאמֶר אֵשֶׁת־יְהוָ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가인 (יָקִין)은 ‘얻음’이라는 의미다. 하와는 아들을 낳고 “여호와와의 도움으로 내가 남자를 얻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그 사람의 삶, 성격 등을 함의하는 경우가 많다. 가인은 어떠한가? 가인은 그 이름대로 삶을 살았다고 보는가? 아무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인에게는 늘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닉네임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남자는 ‘잇스’고 여자는 ‘잇사’다. 하나님은 ‘잇스’인 아담의 몸에서 ‘잇사’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제 하와의 몸에서 ‘잇스’를 얻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굳이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וַיִּזְכֹּר אֵת־יְהוָה) :에트 여호바)다. 하나님이 가인이라는 남자를 만들어 하와에게 주셨음을 암시한다. 물론 가인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와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남자를 얻었다”고 말했다. 하와가 빈말을 하거나 괜한 겸손의 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녀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다. 그런데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진다. 그녀의 말을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독자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변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가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은 남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를 출생하게 만든 결정적 장본인이라는 말이 된다.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동생을 죽일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와를 도와 가인을 낳도록 한 셈이 되니 말이다. 반대로 하와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 또한 성경 해석에 있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창세기 4장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가인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 진술이거나 또는 하와의 개인적 맹신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세기 4장에서만도 가인에 의해 수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딱히 하와가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인의 이름을 놓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악에 대한 인간의 선입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살인은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선악 기준으로는 그 살인의 배후에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선악 기준에 따른 신념일 뿐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옳지만 우리가 구분한 선악의 개념으로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성경에서 실례를 찾아보자. 여호수아 6장 16절~21절은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승전 기록인데 그 중 일부를 살펴보자.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중략)...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소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수 6:16-21).

이 부분을 읽는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은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향한 인류애는 사치에 불과할 뿐이다. 마치 컴퓨터 게임에서 적을 쓰러뜨리듯 여리고 거주민을 대하는 성경 독자의 태도는 가혹하고 무자비하다. 이 부분에서 철천지 원수를 무자비하게 짓밟을 때 오는 카타르시스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이 마치 사백년 이상의 노예생활과 사십 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에서 켜켜이 쌓인 한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살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된 듯한 생각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불순종의 상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의의 사도로 둔갑한다. 그들에게 대적하는 모든 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악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 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어린 아이로부터 여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하는가? 게다가 이들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선한 자들인가?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해 보라. 도대체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가?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해석하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 자체로 선악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기 위해 각자가 맡은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훈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롬 9:20-23).

가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남자다. 하나님은 가인이 태어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태어난 가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다. 유감스럽게도 그가 맡은 역할은 동생을 죽이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히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가인의 질투와 아벨의 허망한 죽음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시고 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배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그 죽임으로 복음이 완성된다. 이래저래 성경은 아이러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나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이 가진 선악의 잣대로 사건을 해석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가인에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 사실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헛됨의 아이콘 아벨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4:2)

(2 절) 그녀는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וַתֵּלֶדְהָ לְאָבֶל אֶת־אָבֶ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וַיְהִי־רֹעֵה רֶעֶה זֶאֵן)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וַיִּזְנוּ הָיָה לְעֹבֵד אֲדָמָ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담의 둘째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다. 창세기 기자는 첫째인 가인과는 달리 그에 관해서는 인색할 정도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 아담도 하나님도 일체 등장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의 이름을 왜 아벨이라 지었는지도 기록하지 않았다.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기록하는 히브리 특유의 문학적 표현에 비추어 봐도 아벨에 관한 기록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그냥 축복의 말 한마디 만이라도 써넣어 주면 안 되나 싶을 정도다.

어쨌든 그는 아무런 환대도 받지 못한 채 태어났다. 더구나 형 가인과 달리 그의 이름은 ‘하벨’ (הָבֶל)이다. 히브리어로는 분명 하벨인데 어찌다 보니 우리 성경에는 아벨로 번역했다. 이미 아벨에 익숙해졌으니 그냥 아벨이라고 부르자. 하벨이든 아벨이든 정작 본인은 신경쓰지 않을 것 같다. 그의 이름에 담긴 뜻이 그렇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없음’이라는 뜻이다. 쓸모없음, 무익함, 가치없음이라는 의미다. 도대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도 되는가 싶을 정도다. 일찌기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하벨 하바림 아마르 코헤레트 하벨 하바림 하콜 하벨’이다. 하벨이 세 번, 하바림이 두 번 반복된다. 하바림은 하벨의 복수형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없음’을 다섯 번 반복한 문장이다. 수식어도 없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도 없다. 단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벨’ (הָבֶל)일 뿐이라는 일방적 선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상은 없음이란다. 보이는 모든 것(色)이 실상은 텅 빈 것(空)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고 보면 성경이 불교보다 훨씬 일찍이 하벨이라는 단어로 이 세상의 덧없음을 설명한 셈이다. 어찌면 인간들이 이 말의 원조에 대해 논쟁을 하는 그 자체가 하벨이겠지만 말이다. 여하튼 존재하긴 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벨이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더 들어 보자.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지되 그 뿔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전 1:3~7).

이 같은 솔로몬의 통찰은 중국 도가 사상의 ‘무위’(無爲)와 맞닿아 있다. 무위는 인위의 반대다. 인간이 무언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모두 인위다. 인간이 스스로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하려는 모든 노

력들은 인위다. 인위는 곧 차별이다. 누가 누구보다 더 착하다,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롭다,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다, 누가 누구보다 더 힘이 세다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인위다. 인위는 언음 즉, 가인의 언어다. 인위는 한(限)이 없다. 반면 무위(無爲)는 그 자체로 완성이요 차별이 없다. 이것이 아벨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대로 가인은 없음이요 아벨은 완성이고 있음이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아벨은 그 이름처럼 살다가 이름처럼 사라졌다. 그가 남긴 족적은 아무 것도 없다. 어찌다운이 없어 질투심으로 똥똥 뭉친 가인 같은 형을 만나 그렇게 되었다고 치부하지 말았으면 한다. 언음, 그 손에 뭔가를 움켜쥐어야 존재할 수 있는 가인이라는 이름에 없음이라는 아벨의 이름은 딱 제격이다. 둘 다 언음이면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아마 지금까지도 서로 피를 부르고 복수에 복수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언음의 반대쪽에는 반드시 빼앗김, 박탈당함이 있는 거다. 가인이 언으려면 아벨은 철저히 없어야 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합해도 가인이고 분리해 놓아도 가인이다. 100에 ‘없음’을 더한들 100이요, 100에서 ‘없음’을 빼들 그대로 100이 아닌가?

인간이 구원받는 모습이 딱 그렇다.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없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구원은 출발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義)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한글 성경은 배설물이라는 점잖은 단어로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은 ‘똥’이다. 유대인이라는 선민 의식, 바리새인으로 쌓은 자신의 의로운 업적들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 사실 바울이 여겼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역한 냄새를 풍기는 똥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가 아벨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하기에 바쁘다. 명문대학을 나와서 선교를 가면 칭찬받아 마땅한 내려놓음이고 농사를 짓다가 선교를 가면 할 일이 없어서 이젠 아무나 선교한다고 무시하기도 한다. 같은 선교라도 격이 다르다. 그런데 마치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만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것이 가치 없는 똥으로 보인다는 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어버림’이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인간들이 키재기하듯 서로 비교해가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 손으로 벌거벗은 상태로 서야 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안심하라. 하나님 앞에는 이미 ‘없음’을 통해 ‘완전함’에 이른 한 제물이 드러져 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서 철저히 자신이 아벨임을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함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셨다.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 글을 쓰는 나부터도 마음 한 구석에는 우쭐해지려는 생각이 또아리 틀고 있으니 말이다. 아래서래 우리는 아벨이 되기엔 한참 멀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게 만드신 모양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지나온 삶은 가인 쪽입니까, 아니면 아벨 쪽입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 수고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 아벨처럼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 결과 당신의 삶은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양치는 자와 땅을 경작하는 자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4:2)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우리에게 양이 가축중 하나이니 목축이라는 개념 밖에 없다. 사실 유목민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 문화에서는 양을 친다는 말 자체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기껏해야 방목 정도로만 이해할 뿐이다. 방목을 하든, 울타리를 치고 사육을 하든 사실이 모두는 양을 치는 것과는 별 상관없다. 유목은 방목도 아니고 사육도 아니다. 유목은 목초지와 물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이다. 그렇기에 양들과 함께 머무는 곳이 자신의 집이고 터전이다. 그러다가 더 이상 풀이 없으면 미련없이 그곳을 떠나면 그만이다. 오직 양들이 싸놓은 배설물만이 그곳에 누군가가 머물렀다는 흔적을 말해줄 뿐이다. 양치기가 거기를 떠나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그의 삶의 터전이 아니다.

그렇기에 양치기와 양은 한 가족이다. 한글 성경은 ‘양을 친다’라고 번역하였다. 그 말에서 양은 철저히 사육의 대상일 뿐이다. 삶을 영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양은 털과 젖과 고기를 주고, 죽으면 가죽을 준다. 양은 단지 유용한 삶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양을 친다라고 번역해 놓으면 아벨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아벨은 없음인데 수많은 양들이 그의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양을 치다’에서 ‘치다’로 번역된 히브어 동사는 ‘라아’ (לָאָה)다. 이 단어는 ‘치다, 사육하다’처럼 상대를 타자로 놓고 다스리는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울리다’ ‘사귀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주종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를 뜻한다. 양은 원래 경제적 수단이 아닌 가족이요 친구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간들이 이런 시스템을 변질시켰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처럼 아벨과 함께 어울려 놀았던 양들을 이제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유용한 목축 수단으로 보게 된 것이다. 결국 아벨은 생계를 위해 목축업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양들과 어울려 놀던 사람이었다.

아벨은 땅이 목초를 내지 않거나 물이 나오지 않으면 미련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반면 가인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운명처럼 땅을 경작하며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평생을 선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땀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 농사를 지어도 땅은 좀처럼 작물을 내주지 않는다. 한번 심은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땅은 늘 가인을 붙들어 놓았다. 가인의 삶은 온통 땅과 작물에 묶여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야 했다. 그런 고단한 애쓰음 통해 그는 땅으로부터 소중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다. 농작물 하나하나가 땀과 수고의 결실이다. 그렇기에 그가 수확한 농작물은 그의 모든 것이며 동시에 그의 분신과도 같았다.

소외(疎外)라는 말이 있다. 각 개인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 개인과 분리되어 절대적 타자로 존재하면서 그를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소외(疎外)는 사회로부터 단절된 상태, 소위 왕따 당하는 것을 뜻한다. 한글 표기는 같지만 한자는 서로 다르다. 전자는 소외(疎外)고 후자는 소외(疏外)다. 소외(疎外)는 원래 마르크스가 자본의 본질을 설명할 때 사용한 말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가인이 생산해낸 농작물 안에는 가인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가인의 모든 노력이 그 농작물 안으로 내재화 되어 가치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소외(疎外)가 일어난다. 그가 만들어낸 농작물의 가치가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노력의 결실인 소중한 농작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단지 제사 그 자체를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 거절된 것이나 다름 없다. 단지 농작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가인은 자신을 소외시킨 농작물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받고 보상받으려 했다. 가인의 패착은 거기에 있었다.

창세기는 유목과 정착이라는 두 가지 큰 틀로 구성되어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 같이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다. 그들은 늘 우물과 목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다. 롯은 안정과 정착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장막에 살면서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다. 몇 번이고 우물을 빼앗기면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팠다. 남들이 자신의 소유를 빼앗으면 미련없이 버리고 터전을 옮겼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모두 양치는 유목민이었다.

그뿐 아니다. 야곱이 말년에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한다. 그때 요셉은 고센 땅이라는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 가족들을 머물게 했다. 그들은 거기서 소와 양을 치면서 살았다. 후에 그 후손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했고, 고센 땅에서 여전히 목축을 하며 살았다.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나온 후에도 여전히 고센 땅에서 목축하던 때를 그리워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조차 풍요의 상징인 ‘소’로 착각했을 정도로 그들은 뺏속까지 유목민이었다.

반면에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어로는 ‘오베드 아다마’(עֲבֵד אָדָמָה)다. 오베드는 동사 ‘아바드’(עָבַד)의 분사형이다. 아바드는 ‘경작하다’라는 뜻이지만 ‘종살이하다’라는 뜻도 있다. 가인은 자신이 땅을 경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땅이 아무런 결실을 내주지 않으면 사실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결국 그는 땅에 매달려야 했고 마침내 땅의 종이 되어야 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든 자신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신을 직업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자기를 설명한다. 어떤 이는 박사라는 타이틀로 자기를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출신 지역이나 학교로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기도 한다. 심지어는 소속 교회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이도 있다. 거기다 안수 집사나 장로쯤 되면 더 우쭐해진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이름만 부르면 성에 차지 않는다. 사장님, 회장님 소리 듣기를 좋아하고, 장로님, 집사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어느새 이름은 없어지고 타이틀만 남는다. 인간의 육신은 ‘아다마’(흙)로부터 나온 ‘아파르’(먼지)다. 우리는 먼지 덩어리인 육신을 갈고 닦고 그것을 뽐내는데 평생을 보낸다. 가인이 그랬다. 자신의 모든 것을 땅을 경작하는데 쏟았다. 그렇게 해서 얻은 소산이니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그가 바친 제사가 거절 당했을 때 그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짐작이 간다. 그런 가인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렇기에 구원은 전적인 은혜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애씀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당신은 무엇이 달라졌나요?